



스포츠 동아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sportsdonga.com 10판

이강인 결국 단기임대로 가나

발렌시아 "이강인 팔지 않는다" 못박아
잔류팬 입지 좁아...팀은 단기임대 무게



이강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 소속 이강인(18)의 선택지가 두 가지로 줄어든 듯하다.

이강인이 최근 구단에 '이적하고 싶다'는 뜻을 강력히 전달한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22일(한국시간)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팔지 않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데포르테 발렌시아노', '라스 프로빈시아' 등 스페인 언론들은 "이강인이 팀에 잔류하거나 팔 수 있는 팀으로 단기 임대되는 등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듯하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이강인이 완전 이적할 수 있는 방법은 바이아웃 금액으로 설정된 8000만 유로(약 1057억 원)를 지불하는 팀이 나오는 것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이강인 측도 잘 알고 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이 원한다면 단기 임대를 통해 출전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스페인 언론들의 이야기다. 현재 이강인은 스위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팀의 프리 시즌 캠프에 합류해 훈련하고 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는 다음달 9일 이적시장을 마감한다. 다른 유럽 리그는 9월 1일에 이적시장이 끝난다. 이강인을 원하는 팀은 아약스, PSV에인트호벤(이상 네덜란드), 레반테, 지로나, 마요르카, 그라나다(이상 스페인)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독일 몇몇 구단도 이강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강인이 발렌시아에 남으면 출전기회를 얻어내기만 만만치 않다. 발렌시아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탈 감독의 구상에서 공격 2선은 곤살로 게데스, 데니스 체리셰프, 카를로스 솔레르 등이 확고한 주전으로 분류되고 있다. 백업자원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이강인이 파고 들어갈 틈이 많지 않다. 완전 이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강인에게 현실적인 대안은 단기 임대뿐이다. 이강인 측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최홍석 기자 ghyong@donga.com

투구패턴으로 본 류현진의 진화

26세 괴물 < 32세 여우

<2013시즌 30경기 14승 8패>

<2019시즌 19경기 11승2패>



LA 다저스 류현진은 2019시즌을 기점으로 완벽한 팔색조로 거듭났다. MLB 데뷔 첫해인 2013시즌과 견줘 최고구속은 감소했지만, 완벽에 가까운 제구력과 변화구의 완성도를 앞세워 상대 타자를 제압하고 있다. 70년 1실점으로 시즌 11승을 수확한 20일(한국시간) 마이애미와 홈경기 도중 웃고 있는 류현진. LA | AP뉴시스

데뷔뎀 힘에 의존...패스트볼 54.2% 압도적
올 시즌 패스트볼 줄고 커터·커브 크게 늘어
다양한 변화구와 완벽한 제구력 '제2전성기'
어깨 수술에도 평균구속 ↑...꾸준함도 증명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은 올 시즌 메이저 리그(MLB) 최정상급 투수로

발돋움했다. 19경기에 선발 등판해 11승2패, 평균자책점 1.76의 경이적인 성적을 기록 중이고, 평균자책점을 비롯해 스텔(0.846), 이닝당 출루허용(WHIP·0.935), 9이닝당 볼넷(1.0개), 삼진(112개)/볼넷(14개) 비율(8.0)은 MLB 전체 1위다. 어깨 수술 이후 구속은 조금 감소했지만 체인지업과 컷패스트볼(커터), 커브 등 변화구의 완성도를 높여 팔색조로 거듭난 결과다. 기존 주무기였던 체인지업은 여전히 견재하고 커터와 커브의 위력도 엄청나게 배가했다. 2스트라이크 이후에도 모든 변화구를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다.

류현진은 애초 강속구 투수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MLB 데뷔 첫해인 2013시즌부터 어깨를 다치기 전까진 시속 150km대 초중반의 공을 어렵지 않게 던졌다. 완급조절을 하다가 위기 상황에서 전력

2013시즌		2019시즌	
54.2%(145.3km)	패스트볼(포스·투심)	41.8%(145.6km)	
0%	커터	19.4%	
22.3%	체인지업	27.1%	
9.5%	커브	11.7%	
13.9%	슬라이더	0.1%	
8승3패, ERA 3.25	19경기 기준 성적	11승2패, ERA 1.76	
14승8패, ERA 3.00	시즌 최종 성적	?	

* 괄호 안 수치는 평균 구속

투구하며 이닝을 끝내는 모습은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았다. 그러나 올 시즌은 다르다. 과거와 견줘 패스트볼(포스·투심) 구사 비율도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성기'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30경기에서 14승8패,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한 2013시즌과 견줘 류현진의 투구 패턴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MLB 통계전문사이트인 '팬그래프'에 따르면, 류현진의 데뷔 첫해 구종은 패스트볼(54.2%)과 슬라이더(13.9%), 커브(9.5%), 체인지업(22.3%)의 4개였다. 지금은 슬라이더를 거의 던지지 않는 대신 커터의 비중을 크게 늘렸고, 커브의 구사 빈도 또한 증가했다. 올 시즌 기준으로 패스트볼 구사 빈도는 41.8%로 데뷔 첫해와 견줘 12.4% 하락했고, 커터(19.3%)와 체인지업(27.1%), 커브(11.7%)

를 주로 활용한다. 어깨 수술 후 복귀한 2016시즌(1경기)에도 슬라이더의 비중이 11.8%였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확 줄었다. 예제는 통산 구종별 구사 비율도 2017시즌부터 던지기 시작한 커터(9.7%)가 슬라이더(8.6%)보다 높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힘에 의존하는 피칭을 했다면, 지금은 변화구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커졌다. 여기에 완벽에 가까운 제구를 자랑한다. 굳이 힘으로만 승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팬그래프에 따르면, 2013시즌에는 류현진의 패스트볼 평균구속이 90.3마일(시속 145.3km)이었는데, 올해는 90.5마일(시속 145.6km)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변화구 구사에 대한 자신감이 커진 덕분에 패스트볼의 구속을 어느 정도만 유지해도 충분히 타자를 제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다. 최고구속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구속이 과거와 견줘 상승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MBC스포츠+ 정민철 해설위원은 "(류현진) 과거에는 타고난 힘에 의존해 던지는 경향이 있었다"면서도 "수술 이후에는 몸을 사리는 기간이 있는데, 올해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팔스윙에도 걸림돌이 없다. 김용일 트레이닝구치와 함께 근력 훈련을 열심히 한 것도 꾸준히 구속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분석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CJ CHEILJEDANG

(09~16년 식약처 생산실적 중 자사 전립소 브랜드 생산실적 기준)

대한민국 1등!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 셀레늄 추가로 항산화까지!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
특가 프로모션!
전환주둔 시
4개월 분 구성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 CJ 제일제당 쏘팔메토 열매추출물(미국산), 건조호오(미국산) | 무연료 | 로또비타민(스페인산)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남자들의 고민! 전립선.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로 당신의 활력과 자신감을 찾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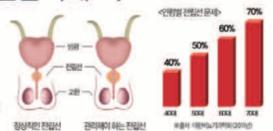
소변고민, 떨어진 자신감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를
추천합니다

- ▶ 짐을 지다 소변을 보기 위해서 매신나니까?
- ▶ 배뇨 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을 보신나니까?
- ▶ 배뇨 후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드신나니까?
- ▶ 소변줄기가 자주 끊어지고 약하십니까?
- ▶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어려우십니까?

(제품정보와는 상관없는 건강정보입니다)

소변문제, 전립선 때문인걸 아세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뱀줄크기의 생식기관으로서 중년이 되면 남성호르몬의 변화로 사과만큼 크기가 커져 방광과 요도를 압박하여 여러가지 소변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남성의 자신감까지 잃게 하는 전립선 고민! 더 이상 슬기지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루빨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가 선택한
쏘팔메토 열매추출물! 체크하세요!
- 미국 FDA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발렌시아산의 USPLUS 프리미엄 원료 사용!
- 세계적인 식품 안전 기준인 할랄 코서 인증까지!

소변을 시원하게! 셀레늄 추가로 항산화까지!

- 국내 최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700명 이상 인체시험을 통해 기능성 원료인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의 항산화력도 개선 확인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셀레늄 추가! 항산화 효소가 풍부하여 체내 세포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비타민 B1, B2, B6, B12 함유로 남성의 에너지와 활력 충전까지
- 중년 남성의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에 꼭 필요한 아연 함유



USPLUS 고품질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는
전화로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080-722-9988

CJ제일제당 건강케어센터 무료상담 및 주문
결핵균, 살모넬라,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구균, 효모, 곰팡이, 바이러스, 원충, 기생충, 균류, 기타 미생물